

## 한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정연자

호원대학교 패션뷰티학부 부교수

### A Study of Formativeness Expressed in Korean-paper Fashion Design

Yeon-Ja Jung

Associate Prof., Division of Fashion & Beauty, Howon University

(2004. 7. 30. 접수; 9. 1. 채택)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lasticity of Korean paper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after general inquiry into Korean paper and examine the aesthetic beauty of fashion design using Korean paper. It used th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data analysis together. Korea-paper fashion design, the object of actual investigation, was for Korean-paper fashion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natural, warm and soft texture seen as pureness in Korean paper enables us to elicit naturalness from liberalness. In addition, Korean paper not only has the tough characteristic of its material but also has the natural characteristic of abandoning its original nature and complying and adhering to its a given nature. Korean-paper fashion design, using this natural beauty and frank nature, bears the pure image of excluding decoration.

Second, the overlapping of the surface on the surface expressed in Korean-paper fashion design forms one space with the sense of depth because of its transparency and expresses temporality through repetition. And the work of folding it with other materials and pasting them up with together demonstrates the effect of reflection because its original transparency. This effect is the specificity created in the collage technique using Korean paper and is the advantage of coming to obtain a wider freedom of expression. Korean-paper fashion design expresses transparency using this repetition and overlapping,

Third, Korean paper has the simple rather than luxurious aspect. Owing to this nature, fashion design looks as if there were the greed inherent behind the work made from Korean paper though the complex technique applied to it. And it expresses the restraint of Korean paper using its original white color, the exclusion of decoration and simple design.

Fourth, Korean paper is more likely to be changed by the outside influence because of formation. It has its peculiar aesthetic value and original artistry to an extent that it is regarded as one artistic work. The quality and texture of Korean paper diversely vary according to the artist's working process. Like this, Korean paper is easily fused into some object without exclusivity though it may be added to it. Korean-paper fashion design has the beauty of creation that is to create a new world because Korean paper is fused into another material due to its soft nature.

**Key Words:** pureness(순수성), transparency(투명성), simple(절제성), formation(생성)

※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현대에는 격심한 문화 변천속에서 많은 이론과 사상이 발생되고 이것은 패션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패션을 이루는 소재 역시 과학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시각 형식의 탐구는 각자의 개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의 형태와 여러 가지 기법들로 표현되었다.

현대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표현영역의 확대 및 소재나 기법을 공유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전통적 의상개념인 실용적 문제와는 별개로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과 창조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미가 가치현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국내 의상전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재선택으로 전통적 기법의 변형과 독창적인 기법을 이용해 예술가 개인의 창작과 실험정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다.

한지도 어느 종이 못지 않게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특질 또한 그 활용의 가치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소재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가장 친숙하게 배어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우리의 생활공간 곳곳에 쓰이면서 우리 감성과 미의식의 일부분을 이루어왔다<sup>1)</sup>.

한지 조형은 현대에 와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고 다양한 표현기법의 응용과 다양한 조형언어로써 표현력을 확대해 왔다. 본 연구자도 한지의 조형성을 표현한 패션작품을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지 패션작품을 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적인 것에서 패션디자이너의 문화가치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실용의 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싶은 바람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거쳐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지의 미적 가치, 조형성을 살펴보고 그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과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제 고찰대상인 한지 패션디자이너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지 패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Paoletti<sup>2)</sup>의 내용분석법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수량적 자료를 뽑아낸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Lettelle<sup>3)</sup>이 제시한 좀 더 자연적이고 해석적인 기술적, 귀납적, 질적 내용 분석을 행하는 질층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Delong<sup>4)</sup>의 A. B. C(apparel. body. construction)의 법칙을 바탕으로 관찰, 분석, 해석, 평가의 4단계를 적용하였다.

## II. 일반적 고찰

### 1. 한지의 정의

우선 종이의 정의와 발생 기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면, 종이란 “식물의 섬유를 풀어 평평하면서 얇게 서로 엉키도록 하여 물을 배고 말린 것”<sup>5)</sup>이라고 하였고, 영어의 종이를 뜻하는 paper는 라틴어 파피루스(papyrus)로부터 그 어원이 유래되었는데 웹스터(Webster)사전에 의하면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형질, 밀짚, 나무껍질, 목재, 기타 다른 섬유에서 나온 조각이나 잎으로 만든 물질이다”<sup>6)</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피루스는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여러장을 측면으로 겹치면 사용하기 편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 수 있었으므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어떤 대용종이 보다도 큰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sup>7)</sup> 한다.

한지(韓紙)는 ‘닥종이’로 흔히 통칭하는데, 이 ‘닥종이’의 ‘닥(楮)’은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원료 중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되는 원료로서의 ‘닥나무’에서 출발한다. 한지는 닥피(楮皮)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수초지(手抄紙:hand-made-paper)를 말한다.

### 2. 한지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만들어진 것은 약 1400년 전 고구려 시대의 승려 담징을 그 효시라 할 수 있다<sup>8)</sup>.

우리나라 종이의 기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는 고구려 영양왕 21년(610년)이다<sup>9)</sup>. 한지의 역사<sup>10)</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는 한지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상당기간동안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나 이 때부터는 우리의 한지를 이룬 시기이다. 고구려는 낙랑으로부터(麻)를 사용하는 방법을, 백제는 닥(楮)을 사용하는 제법을 중국의 남부지방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전수받은 기법을 통일 이후 백추지로 대표되는 계림지로 발전시켜 오늘날의 한지를 이루었다.

통일신라시대(서기668~935년)에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국보 19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용지는 서기 751년 이전의 닥종이임이 고증되었고, 755년 사성(寫成)된 백지묵서화엄경은 8세기 중반의 것으로 고해<sup>11)</sup>나 정선이 잘되어 있는 한지였다.

고려시대(918년~1392년)는 불교문화의 성행과 인쇄술의 발달로 제지와 출판의 전성기였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닥나무의 재배를 권장했던 시기이다<sup>12)</sup>. 신라시대보다 우수했으며 순 저(漚)로 만든 흰 빛의 백추지, 비단같이 질긴 서화용의 견지(繭紙), 불서(佛書)로 찍어내기 위한 불경지 책 표지용의 청지(靑紙) 등이 생산되었다. 조직이 치밀하고 질기며 두툼하면서도 표면이 명주와 같이 광택이 나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어 고려시대의 제지술은 완성단계였다. 고려시대의 닥종이는 고려지라 불린다.

조선시대(1392~1910) 초기에는 국영제지 공장이 설치되어 품질개량을 통한 다양한 재질의 한지가 생산되었다. 닥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식물을 종이재료로 이용하여 서적은 물론, 창호, 모자, 병풍, 우산, 장판, 혼서용, 장례용, 서화용, 지폐, 저화(화폐), 갑의 등의 모든 부분에 그에 맞는 종이의 성질을 충족시켰다. 후기에는 한지 제지술의 쇠퇴기,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적 피해로 제지술이 쇠퇴하였다.

근대·현대(1910~)에는 닥 재배의 장려가 있었고, 협동조합의 조직 등 생산 조직의 정비, 품질과 품종의 개량연구, 한지개량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였다. 1915~21년간 저피의 생산과 닥 식재가 늘어나고 원가절감책의 하나로 한지 역사상 처음으로

목재펄프의 혼용을 시도하였다. 제조공정을 보면 원료박피→흑피제거→정선→수침→증해→수세정선→표백→고해→배합→취저음→초지→압착→건조→완성으로 오늘날의 공정과 같다.

### 3. 한지의 제조과정

생산지에서 재배된 저(漚)를 원료로 한 한지의 제조과정<sup>13)</sup>은 다음과 같다.

- ① 동지를 전후하여 저(漚)를 베어 그 껍질을 벗긴다. 이것이 흑피인데 제지(製紙)의 원료가 된다.
- ② 흑피를 흐르는 물에 하루동안 담고 발로 밟아서 외피를 훑어낸다. 이것을 백피(白皮)라 한다.
- ③ 백피를 물에 불려서 잣물이 든 솥에 넣고 1시간가량 끓인다.
- ④ 더운 김이 가시기 전에 맑은 물에 뻐다.
- ⑤ 물에 뻐 백피를 2주일동안 햇볕에 표백하여 곱게 짚는다.
- ⑥ 물에 부어 넣은 기틀에 펄프가 된 낙나무를 넣고 섞어서 젖는다.
- ⑦ 그런 다음 1년초 식물인 황축규 뿌리즙으로 만든 닥풀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 ⑧ 다음으로는 종이를 뜨게 되는데, 지통위에 종이를 만들 크기의 발틀을 건 다음 종이물을 걸러서 뜬다. 틀 위에 올라온 섬유질을 켜켜이 쌓아 물을 빼고 다림질하며 건조시키면 비로소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된다.

### 4. 한지 디자인의 특성

한지 작업의 특성을 보면, 원하는 형태의 작품구성이 가능하고 다른 재료와 쉽게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sup>14)</sup>.

의상을 가능하게 하는 한지의 특성으로는 원료가 인피섬유이기에 질기고 강인한 점, 보존성이 강하고 닥풀(황축규)에 의해 물에 영키지 않고 분산되기 때문에 과학성이 좋다는 점이다<sup>15)</sup>.

한지는 질기고 부드러운 물성, 견고한 재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형태의 변형이 쉽고 타재료와의 혼합이 용이하여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순응하고 밀착하는 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작품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조화로운 짜임새보다는 질박한 느낌, 충만함보다는 공허가, 세련보다는 소박함을, 완성보다는 미완성을, 인공보다는 자연이 강조되는 분위기의 미술이 한국미술로 정의되어 내려왔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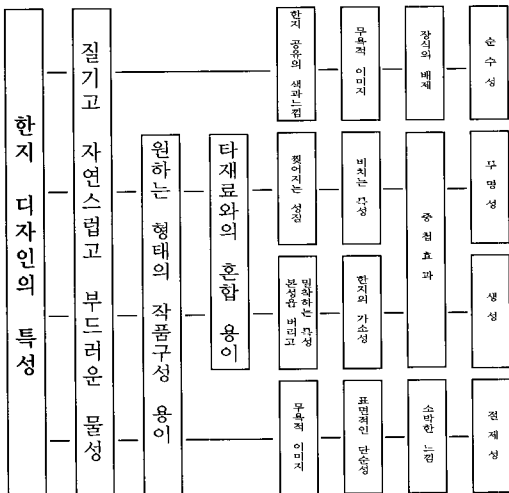
한지 디자인에도 이러한 한국적인 정서가 깃들여져 있어 화려한 색채와 디자인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욕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지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외에 찢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찢어진 후의 예상하지 못한 우연성은 또다른 작품세계를 표현해 주기도 한다. 특히 '닥'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손을 이용해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지의 가소성(可塑性)을 이용해 요철효과를 내어 작품을 하기도 한다.

한지는 비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지조각과 조각간의 중첩의 효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성 속에서 조형미를 찾아가기도 한다. 한지의 두께에 따라 비추어지는 한지의 색채나 투명도에서 오는 다이내믹한 효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디자인할 수 있다.

살펴본 한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한지 디자인의 특성을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한지의 디자인의 특성



### Ⅲ. 한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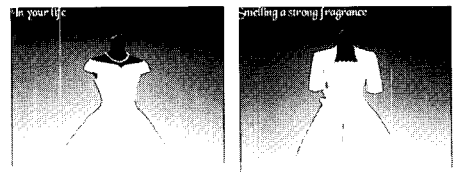
한지 디자인에 나타난 특성을 근거로 한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조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순수성

현대예술의 특질은 순수성의 지향에 있다.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복식은 과장을 없애고 직물 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켜 창조적으로 나타난 자연의 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sup>18)</sup>.

한지 패션 디자인에서도 한지 고유의 색을 이용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을 이용하여 장식을 배제한 자연스럽고 단순한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림1><sup>19)</sup>의 한지 웨딩드레스는 흰색과 단순한 스타일로 웨딩드레스가 주는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림1> 순수성 표현

#### 2. 투명성

투명성은 그 성질에 의해 '개방적인', '숨김없는', '공공연한' 등의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게 한다<sup>20)</sup>. 이러한 솔직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투명성이 한지 패션디자인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 한지 자체의 반투명한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 낙수지나 닥지의 비치는 한지에 의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슬래쉬나 컷워크 기법으로 찢거나 붙이면서 작업했을 때 비침의 효과가 나타난다. 폴라쥬 기법에 의해서 표현되는 투명성은 중첩에 의해 깊이를 주는 방법적 모색과 투영을 통해 나타나는 다의적 공간 표현의 요소 구성되어 우연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림2〉<sup>21)</sup>는 흰색의 원피스 작품에 색이 있는 한지 조각을 덧붙이고 그 위에 닥지를 덧붙혀 표현한 작품이다. 붙이는 중첩속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표현되고 있고 처음의 이미지와는 전혀다른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 투명성이 표현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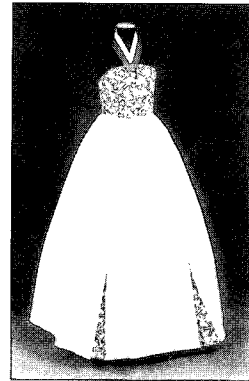
〈그림2〉 투명성 표현

### 3. 절제성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단순함에는 한지 그대로의 고유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의미의 단백함이 있는데, 형태의 단순미는 내용과 소재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기교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려한 색과 디자인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한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특성에 의해 욕심이 없는 무욕의 미가 전달된다.

〈그림3〉<sup>22)</sup>은 드레스에 깃만 표현하여 한복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선과 실루엣으로 절제의 미가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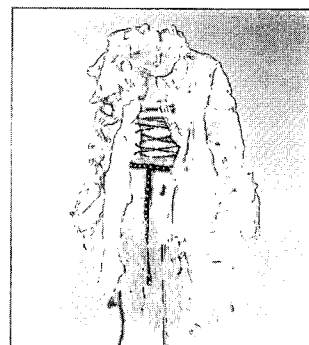
〈그림3〉 절제성 표현

### 4. 생성(生成)

한지의 텍스처 자체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예민한 감도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얼마든지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23)</sup>. 한지는 물기없는 종이 그대로일 때는 화살로도 뚫을수 없는 끈질긴 근성이 있지만 일단 물을 먹으면 자기의 본성을 잃고 상대의 모양에 따라 순응하고 밀착하는 자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드러움이 가미된 생성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직조, 니트, 구김, 꼬기, 프린트 등의 기법으로 한지소재와 전혀 다른 느낌의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4〉<sup>24)</sup>는 닥지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즉흥적으로 작업하여 표현된 작품으로 닥지의 자연적인 성질을 이용해 투박한 느낌의 의상으로 탄생된 것이다.



〈그림4〉 생성 표현

〈표2〉 한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내적의미, 조형성

내적의미 조형성	순수성	투명성	절제성	생성(生成)
실루엣	인체선 표현 단순한 형	직선형, 곡선형 혼합형	기하학적인 형 자연스런 형태	절충형 기하학적인 형
선	곡선 단순한 선	유기적이고 복잡한 선	간결한 선	복잡한 선 기하학적인 선
색채	한지 고유의 색	다양한 색	한지고유의 색	다양한 색
혼합소재	변형된 한지소재 레이스	천연소재	직조	물감, 니트
표현기법	장식의 배제 단순한 표현	슬래쉬, 니트 플라쥬, 중첩 커트워크	포기, 접기, 직조 패치워크	복잡한 표현 소재변형, 니트

#### IV. 결론

독특한 표면질감과 안료를 깊이 흡수하는 특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면으로 인한 특이한 물성을 지닌 한지는 이제 그것이 지니는 인간적, 자연적 의미와 그것에 행해지는 작업의 의미가 일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한지라는 물성과 작가의 심성이 일체화되어 그 자체로서 조형화 됨으로서 하나의 독자적 세계가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내적 의미와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성으로 한지에서 보여지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은 자유로움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 또한 한지는 견고한 재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순응하고 밀착하는 자연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미와 솔직한 성질을 이용하여 한지 패션 디자인은 장식을 배제한 순수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둘째, 투명성으로 한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면과 면의 중첩은 하나의 깊이감 있는 공간을 형성하면서 반복을 통한 시간성을 표현하고 다른 소재와 다르게 겹쳐 붙이며 작업 했을 때 그 고유의 투명성으로 비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한지를 이용한 플라쥬의 기법 안에서 창출되는 특이성으로,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결정점이다. 한지패션 디자인은 이러한 반복과 중첩

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절제성으로 한지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한지 패션 디자인은 복잡한 기법을 사용했어도 작품 이면에는 내재된 욕심이 없어보인다. 한지 고유의 흰색, 장식의 배제, 단순한 디자인을 이용해 절제성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생성(生成)으로 한지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이 크다. 한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간주될 만큼 특유의 미적 가치와 독자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작업에 따라 한지의 질과 텍스처는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한지는 어떤 오브제를 첨가시켜도 배타성 없이 쉽게 융화된다. 한지 패션 디자인은 한지의 부드러운 성질로 인하여 다른 물질과 융화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생성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한지 패션디자인은 재료의 다양한 시도와 함께 조형예술의 영역확대와 재료사용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지 패션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에 맞는 의식을 가지고 주제적, 독창적인 표현을 지향해야 할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1) 서정걸 (1999). *한지에 깃든 황토빛 정서*. 월간미술 2월호, p.8.
- 2) Paoletti, J. B. (1982).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 pp.14-17.
- 3) Littrel, M. A. (1989).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세미나* (10).
- 4) Delong, M. R. *The way we look*.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7-13.
- 5)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25권 (1983). 동아출판사, p.318.
- 6) A Substance made in the form of thin sheets or leaves firm rags, strows, bark, wood or other

fibrous material for various use.

- 7) 木戸啓 (1883). 古代 Egypt의 書寫材와 리가부 博士. 2월호, p.45.
- 8) 제홍규 (1973). 한지사소고. 서울국립 중앙도서관 논단, p.29.
- 9) 배재훈 (1958). 종이에 대한 사적 편고. 製紙 1/2 월, p.6.
- 10) www.hanji.com
- 11) 고해 : 표백이 끝난 닥을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들기어 해리시키는 작업.
- 12) 김병기 (1982). 한국과학사. 이우, p.393.
- 13) 서울특별시 (1976). 서울의 무형문화재, pp.241-242.
- 14) 허정선 (1992). 한지 염색을 통한 한지의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 15) 전양배 (2000). 한지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11.
- 16) 김미진 (1997). 한지작업을 통한 인체형상 표현.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p.9.
- 17) 조요한 (1999).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p.339.
- 18) 정연자 (1999).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건대박사학위논문, p.59.
- 19) 오선숙 (2003). The your life. paper Wedding Dress Exhibition.
- 20) 정연자 (2002).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공간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3), p.28.
- 21) 천지영 (2003). Combination. 한지패션쇼, p.60.
- 22) 양정숙 (2000). 因緣. 제3회 한지패션쇼, p.7.
- 23) 서성록 (1994).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문예출판사, p.212.
- 24) 김주희 (2003). Fromthe Outside of Clothing. 03 Book. Festival Hanji Fashionshow, p.8.